

북한 『로동신문』 사설 분석

2020-6 (11월/12월)

이기동 (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설 목록	1
2. 주요 특징	2
3. 개별 사설 특징	4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11. 1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전투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자
2	11. 4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강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자
3	11. 9	자력갱생대진군으로 80일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자
4	11.15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
5	11.22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8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
6	11.23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자
7	11.28	전당, 전민이 고락을 함께 하며 힘차게 전진하자
8	12 1	당조직들은 강력한 사상공세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자
9	12.19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10	12.27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의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

2

주요 특징

-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제로 한 사설 부재 및 9~10월에 비해 명기 빈도가 현저히 감소
 - 9월과 10월에는 각각 18회 명기하였으나, 11월과 12월에는 각각 1회 명기
 -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중요한 사전 징후

- ◆ 김정일 사망일(12.17),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일(12.24),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일(12.30) 기념 사설 부재 및 중앙보고대회 미개최
 - 2018년과 2019년에는 기념 사설 모두 게재
 - 80일 전투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과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
 -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전승절(7.27) 이후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특이 현상으로 볼 수 없음

- ◆ 80일 전투의 초기 성과에 대한 낙관적 평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적 평가로 변화
 - 80일 전투 개시 1개월 전후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성과로 평가하였으나 점차 일부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를 선전
 - * “수많은 단위들이 첫달 목표수행에서 성과를 달성”, “전투목표가 일정대로 수행되어 전반적 전선에서 승리를 예고하는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이 기세로 나가면 당이 제시한 전투 목표들을 빛나게 수행하고 8차 당대회를 의의깊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제시
 - 한편, 80일 전투 초반에는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난관 앞에서 정신력, 일심단결, 자강력 과시의 기회”와 같은 비경제적 성과에 평가의 중점을 두는 경향 시현

- 80일 전투 초반에는 “성과 열풍”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선전 부문에서 의도적으로 성과를 부풀리거나, 각 부문별, 단위별로 성과를 허위보고하였을 가능성 존재

◆ 자연재해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치산치수의 경제적 이익을 언급하면서 국토관리사업을 통한 인민경제 발전을 주문

- 특히, 자연재해 복구에 많은 노력과 설비, 자재가 소모되어 정상적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토로
- 현재의 치산치수사업을 나중에 “후대들이 덕을 보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김정은의 후대관(후대사랑)을 내세워 근래에 겪은 대규모 수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

◆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 작업에 자원과 노력을 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산 투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방직공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선전

- 사설을 보도한 11월 9일 현재 방직공업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는 반증

◆ 인민들에게 인내심 발휘와 80일 전투에서의 적극적 분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역설 논법을 사용

- 시련과 난관의 크기와 자강력 증대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논리를 구사하는 한편, 올해를 최악의 시련기에 국가의 저력과 발전잠재력이 뚜렷하게 돋보인 해라는 논리 사용
- 이러한 역설논법은 인민들에게 자긍심을 고무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활용하지만, 인민들이 이러한 선전논리를 내면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

◆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 예고

- “경제관리분야에 법질서 강화”, “생산계획 무조건 수행을 위한 법적 통제 강화”, “국가자원 이용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감시 심화”, “인민경제계획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 확립”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

3

개별 사설 특징

11월

①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전투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자 (11. 1)

- 노동신문 창간 75주년(1945.11.1) 기념 사설
 - 노동신문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출판보도물”로 정의하는 가운데 김정은 시대들어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
- 노동신문을 비롯한 노동당의 출판보도물이 체제위기 상황에서 체제수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선전
 - * “1990년대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출판보도물들이 당과 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를 복귀하는데서 앞장서고있을 때에 당과 수령, 혁명을 결사보위하고 붉은기정신, 붉은기철학으로 온 행성을 진감”
- 혁명의 관건적 시기에 맞게 출판보도물의 새로운 모습 창조를 촉구
 - 8차 당대회를 앞두고 80일 전투를 벌이는 현 시점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진일보를 위한 결정적이고 책임적인 시기”로 규정
- 80일 전투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자와 언론인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들을 제시
 - (김정은의 출판보도사상과 업적 체득 및 실천) ▲김정은의 출판보도원칙과 사업체계, 집필편집방법론을 출판보도사업의 지도적 지침화 ▲이를 위한 강철 같은 규률과 질서 확립 ▲김정은의 심오성, 통속성, 간결성, 호소성을 귀감으로 삼아 따라배우기
 -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 깊이 자각) ▲이전 세대 기자와 언론인들처럼 심장 속에 시대적 사명감 깊이 간직 ▲수령, 당, 국가, 인민을 긍지높이 자랑하는 시대의 명작 창작 ▲친인민적이고 친현실적인 명작 창작 ▲명작 창작을 위한 여러 분야의 지식 소유를 위한 노력 경주

②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강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자 (11.4)

- 현재 진행 중인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전개 기념 사설
 - 치산치수의 실패를 수해의 중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치산치수의 필요성을 주지하면서 운산군과 성천군의 모범 따라배우기를 독려
 - * “산들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강하천정리를 잘해놓아야 토지를 비롯한 국토를 보호할 수 있고 인민들의 생명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하게 전변시킬 수 있다”
 - 회창군은 치산, 성천군은 치수의 모범지역으로 선전
- 치산치수사업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과시” 및 “후대관”과 연계하여 설명
 - 국토관리와 생태환경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당의 의지임을 강조
 - 현재의 치산치수사업을 “후대들이 덕을 보는 사업”으로 규정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후대사랑을 내세워 근래에 겪은 대규모 수해에 따른 민심 수습을 위한 선전 목적
- 자연재해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치산치수의 경제적 이익을 언급하면서 국토관리사업을 통한 인민경제 발전을 주문
 - 특히, 자연재해 복구에 많은 노력과 설비, 자재가 소모되어 정상적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토로
- 김정은의 영도 하에 강력한 치산치수사업이 전개되었지만 성과보다 미진한 부분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치산치수사업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성과) ▲모든 산을 ‘보물산’으로 만들기 투쟁 전개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 발전소 건설 및 강하천 정리사업 추진 ▲현대적인 양묘장 건설
 - (국가 발전과 인민 행복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입장 견지) ▲경제림, 보호림, 풍치림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갑문과 저수지 건설,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 추진 ▲자기자신과 후대를 위한 사업이라는 사상교양사업 강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 기관들의 치산치수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멘트와 철강재 우선 보장

-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끝장을 볼 때까지 추진) ▲각 지방의 기후특성과 강하천 상태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해일과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영구적인 해안구조물 건설 ▲시작한 사업은 끝장을 볼 때까지, 은이 날 때까지 진행
-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한 국토관리사업 추진) ▲과학적인 방풍림 조성 및 침엽수와 활엽수 배합 식수 ▲계절별 강하천의 유수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관리 및 일상적인 준설작업 진행 ▲사태감시기술에 의거한 위험지역 적시 발견 및 사방야계공사에 토양생물공학기술 도입

㉓ 자력갱생대진군으로 80일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자 (11. 9)

- 80일 전투 개시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자력갱생에 기초하여 80일 전투에서의 분발을 촉구하는 사설
 - “수많은 단위들이 첫달 목표수행에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
- 북한의 저력과 발전잠재력을 “기존의 공식이나 개념, 경제학적 수자”로 가늠할 수 없는 이유가 자력갱생 때문이라고 주장
 - 제재 등 “혹독한 장애와 도전들”을 오히려 자강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
-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 작업에 인적, 물적 잠재력이 총동원됨에 따라 각종 경제 단위에서 전개되는 증산투쟁의 어려움을 인정
- 여러 경제부문들에서의 증산투쟁을 소개하면서 방직공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공개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 부문별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과 차이
 - 11월 9일 현재 여러 경제부문 중에서 방직공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는 반증
- 8차 당대회에서 토의할 “혁명발전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투쟁단계의 전략적 과업”의 핵심 내용이 자력갱생임을 시사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토대로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을 제거하기 위한 창조정신 확립

- * “류레없이 흑독한 난관속에서 무엇이든지 제손으로 만들어내고 제땅에서 찾아내며 발전과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창조정신”

○ 80일 전투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승전포성을 울리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당일군들의 자력갱생 대진군 선도) ▲80일 전투의 전 과정을 주체적 힘과 내적 잠재력 강화에로 지향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 것을 체질화, 습벽화 ▲대중과 동고동락하면서 난관을 강행돌파해 나가는 실천가 되기 ▲세계적 추세와 미래를 내다보며 과학적이고 독특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원칙을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 실시
-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기) ▲국산화, 재자원화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항구적 전략 ▲경제사업에서의 애로 발생 시 국경 밖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국내의 생산단위, 연구단위, 개발단위와의 긴밀한 협동으로 해결 ▲자기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기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증산절약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한 자강력 증대) ▲전투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적시 해결 ▲자기 단위를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환경보호형, 기술집약형, 개발창조형으로 개건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리 것에 대한 애착 심화

④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 (11.15)

○ 80일 전투 개시 1개월 경과 시점에서 전투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사설

- 지난 1개월 동안 “전투목표가 일정대로 수행되어 전반적 전선에서 승리를 예고하는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평가
- “이 기세로 나가면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들을 빛나게 수행하고 8차 당대회를 의의 깊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제시

○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배가해 주기 위해서는 80일 전투에서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

- *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되는 빛나는 성과는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는 원천이다”

-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각종 비전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80일 전투에서의 일정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의미

○ 시련과 난관의 크기와 자강력 증대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논리를 사용하여 인민들에게 인내심 발휘와 80일 전투에서의 적극적 분발을 독려

- 대표적인 사례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와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의 혁신 창조와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의 생산계획 초과수행 등을 제시

○ “인민이 지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갖는 함의를 설명

-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긍지와 자부심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전변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

○ 80일 전투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 제 기일내 무조건 철저히 관철) ▲전투목표를 일별, 주별로 달성하기 위한 일심전력 경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 교훈을 분석총화하고 남은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순간의 해이나 방심, 완만성이 없이 항상 긴장하고 전투적으로 일하고 생활
- (자기 손으로 만들고 제땅에서 찾아내는 혁명적 기풍 고양)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생산 활성화 고무 ▲원료, 자재의 국산화 및 재자원화와 선질후량의 원칙 견지 ▲수입병 종식 및 국내의 생산단위, 연구단위, 개발단위와의 긴밀한 협동으로 문제 해결 ▲선진과학기술 습득 노력과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기풍 확립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⑤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8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 (11.22)

○ 수도당원사단들의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전체 인민들과 당원들이 이를 따라 배울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수도당원사단은 지난 9월 김정은의 공개서한을 통한 지시로 1만 2천명의 평양시 당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시 조직으로 80일 전투의 4대 투쟁목표 중 하나인 “연말까지 수해복구작업 완수” 차원에서 함경도 수해복구사업을 담당

- 지난 9월 8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충성의 꺾기대회를 개최하고 수해복구현장에 급파하여 현재까지 70여 일 간 수해복구사업을 진행
- *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굴함없는 공격투사, 불가능을 모르는 기적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

-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을 지니고 당의 믿음과 기대에 결사의 실천으로 보답한 친위대오 ▲가장 가혹한 난관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조선혁명가들의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한 불굴의 투사들 ▲온 나라가 시련을 함께 타개해 나가는 아름다운 사회주의국풍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

○ 수도당원사단의 대표적인 사업 성과를 다음과 같이 선전

- ▲매우 촉박한 공사기일을 훨씬 단축한 기적적 위훈 창조 ▲부족한 건설자재 자체 확보 및 새로운 건설공법 적극 도입 ▲제1수도당원사단의 착공 18일만 147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 건설 ▲제2수도당원사단의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전투임무를 성과적으로 완수 ▲사업 완수 후 평양 복귀 대신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이동

○ 수도당원사단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받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당성, 인민성, 혁명성 따라배우기)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 깊이 체득 ▲당적, 국가적 입장에서 사고하고 철저히 복종하는 관점과 집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정신 체질화 ▲개인주의적 인생관 배격 및 사회를 덕과 정이 넘치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어려운 곳에 먼저 달려나가고 숭고한 모범으로 군중을 이끌기
- (따라배우기 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고 난관을 정면돌파하여 전진발전의 대통로 확보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 ▲조건과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전투목표 무조건 관철 ▲극악한 조건에서도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전화위복의 기적 창조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⑥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자 (11.23)

- 80일 전투의 4대 투쟁목표 중 하나인 “올해 농사를 잘 결속하고 내년 농사준비에 역량 집중”을 촉구하는 사설
 - 자연재해 속에서 다수확이라는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농사 차비(준비)에 최대의 힘을 집중시킬 것을 주문
 - * “레년에 보기 드문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 어느 부문보다 커다란 난관을 겪었지만 농업 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알곡증산을 위한 가치있는 경험을 마련하고 다수확을 거둔 것은 매우 귀중한 성과”
- 농사 차비를 다음해 농업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으로 규정
 - 종자 준비, 농기계와 농기구 수리 및 정비, 질 좋은 유기질 비료 충분히 생산 등 시의적절한 농사차비의 중요성을 강조
- 당의 농업발전 5대요소에 기초한 농사 차비를 촉구
 - * 농업발전 5대요소 :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 지도 강화
 - (종자 준비) ▲당의 종자혁명에 의거하여 각 단위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 도입 ▲종자보관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하여 종자의 허실 방지
 - (지력 강화) ▲질 좋은 거름 생산
 - (저수 확보) ▲양수기 수리정비와 고압전동기 질적 개조 ▲물길과 저수지, 저류지 건설 및 쫄짱박기(管井)와 굴포(옥수수밭 옆 작은 저수지), 우물파기 등을 계획대로 진행 ▲자연재해로 파괴된 관개구조물 복구 및 유실된 농경지 조속히 환원, 복구
 - (기계화 비중 확대) ▲트랙터부속품공장과 연결농기계공장들,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 공장들의 설비 총가동 ▲각 농장의 농기계, 농기구 수리정비 준비에 만전
 - (농촌에 필요한 영농물자 제때 보장을 위한 현실성있는 계획 수립)

⑦ 전당, 전민이 고락을 함께 하며 힘차게 전진하자 (11.28)

- 2020년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8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사설
 - 진행 중인 80일 전투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올해를 승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8차 당대회를 맞이하자는 내용

- 올해를 최악의 시련기에 국가의 저력과 발전잠재력이 뚜렷하게 돋보인 해로 평가하면서 “올해의 간고한 투쟁” 속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선전
 - 앞서 시련과 난관의 크기와 자강력 증대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논리와 함께 국난의 상황을 정당화하는 반전(反轉)논리로 자주 사용
 - * “세계를 불안과 혼란속에 빠뜨리고있는 대재난속에서도 고도의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확신성있게 내밀고있는 우리나라의 불굴의 기상은 만사람을 경탄시키고 있다”
 - * “난관극복의 제일 값진 승리는 곤난을 박차고 준엄한 시련기를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로 반전시키는 것이다”
 - (당과 인민의 불가분리적인 혈연적 유대관계 강화 실현) ▲당은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시기 위한 전례없는 조치들을 시행 ▲인민들은 당과 국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자각적 일치성과 행동의 일치성으로 보답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미풍을 확고한 국풍으로 자리매김
 - (강국건설의 전진발전을 위한 귀중한 진일보 실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경제의 내적잠재력과 발전동력을 강화하는 사업 진척 ▲최악의 기상조건에서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전력과 석탄 등 여러 공업부문과 건설 부문에서의 전진 실현 ▲불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교훈 획득 ▲간고한 시련 속에서 자기를 이겨내는 법과 우리 식, 우리 힘,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난관 극복과 도약의 투쟁방식 체득
- “중첩된 격난” 속에서도 일심단결 덕분에 정치적 안정이 확고히 보장되었음을 선전
 - 앞으로 자력갱생과 더불어 일심단결을 국난 극복의 주요 담론으로 활용함으로써 수령결사옹위와 집단주의적 결속을 강조할 것임을 시사
 - *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재나 봉쇄라는 말만 나와도 민심이 소란해지고 사회적혼란이 극대화 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이 확고히 보장”
- 일심단결을 통해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 실현) ▲김정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잘살 날이 온다는 철리 각인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지상의 과업으로 여기고 당이 정한 기일내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완수

- (국가와 어려움을 같이하고 국사에 헌신하는 국풍 발휘)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는 집단주의 위력으로 난국 타개 ▲선공후사의 관점과 당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각오 견지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처럼 최전선으로 달려나가는 헌신
- (8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진군 박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투목표 수행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분석총화하고 무조건 완수 ▲80일 전투의 4대 투쟁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경주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3

개별 사설 특징

12월

① 당조직들은 강력한 사상공세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자 (12. 1)

- 11월 29일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관철을 촉구하는 사설
 - 동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논의 ▲당 중앙위의 해당 부서기구 개편에 대한 문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문제 등을 논의
 - 특히, 경제지도기관들의 사업 실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었음을 공개
 -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제 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1.30)
 - 동 사설은 동 회의에서 토의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부문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초점
- 중첩한 시련과 도전 앞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역점사업임을 주지
 -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함에 따라 교양사업을 소홀히 하면 사업 자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상진지에 틈이 생길 수 있으므로 80일 전투를 “사상동원전으로 지향”할 것을 촉구
 - 80일 전투를 시작한 지 5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민들의 피로감을 “사상공세”로 해결하려는 의도

○ 강도 높은 사상교양사업을 통한 일심단결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함양) ▲김정은 위대성 교양 강화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심어주어 당의 결정과 지시관철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현실감 있는 사상교양 전개 ▲최강의 국방력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가 있기에 미래가 더욱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 심어주기
-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교양사업에 역점) ▲군자리혁명정신 따라배우기 사상공세를 통한 수입병, 의존심 완전 척결 ▲국가의 조치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력자세 견지토록 하는 교양을 통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고 고도의 자각성과 행동의 일치성 철저히 보장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학습기풍 철저히 확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전적 노작과 당정책 학습을 통해 당의 의도와 난국 타개 방안을 깊이 연구하여 옳은 방법론 강구토록 지도
- (일군들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 수행 고무, 추동) ▲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 철저히 보장 및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 발휘토록 지원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 따라배우도록 사상교양 진행 ▲당원들이 자기 일터와 초소에서 누구 보다 높은 실적을 내는 혁신자, 대중의 친근한 벗, 집단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둥이 되도록 도와주기

②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12.19)

- 8차 당대회 개최 이후 당대회 결정을 관철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도의 식량증산을 위해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사설
 - 당이 제시한 농업발전 5대요소 중 하나인 “과학농사를 떠나 농업생산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
 - 부침땅(경작지)이 제한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에서 과학농사를 통한 정보당 수확량 증대가 농업생산 증대의 결정적 열쇠라고 주장
- 최근 과학농사를 통해 좋지 않은 지리 여건 하에서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을 밝히면서, 이점이 과학농사를 중시하는 이유라고 선전

- * “최근년간 벌방지대와 중간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의 많은 단위에서 자연의 광란을 이겨 내고 알곡생산을 늘인 경험은 과학농사야말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가장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

○ 과학농사방침 관철을 통한 다수확 성과를 이루기 위한 농업부문 종사자들의 역할과 과제들을 제시

- (농업부문 당일군) ▲과학기술중시의 입장에서 일년 농사를 작전하고 영농작업의 전 과정을 과학농사로 일관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학습 ▲농사지도에서 기술적 지도를 선행하고 영농기술과 방법을 일반화하며 모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는 요구성 제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활발한 전개 ▲경험주의, 보신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 척결 ▲넓은 경험을 고집하면서 과학기술을 확대하는 경향 제거 ▲과학기술연구 성과들을 농업생산에 제때 도입 ▲도, 시, 군, 농장에서 우월성이 입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 능률적인 농기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노력 전개
- (농업근로자) ▲모든 농사를 과학기술적 요구와 과학기술적 이치에 맞게 습벽화 ▲새로운 과학농법과 기술 끊임없이 습득 ▲다수확 단위, 다수확자들의 선진 기술과 경험 따라배우기 ▲발명과 창의적 고안, 기술혁신운동 전개 ▲한 가지 이상 기술 소유 및 현대적 농기계 능숙히 다루기
- (농업부문 과학기술자) ▲종자문제, 영농기술문제, 종합적 기계화문제 등 절실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총력 집중 ▲애국의 자세로 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고 끝장을 볼 때까지 추진
- (농업부문 당조직) ▲과학농사를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정치사업 적극 전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심과 낙관, 각오를 가지고 농업정책 관철에 솔선수범하도록 유도 ▲당 일군들에게 과학기술에 근거한 농사지도 독려 및 농업근로자들에게 과학농사 주인의심 각인

③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 (12.27)

○ ‘사회주의헌법절’(1972.12.27) 48주년 기념 사설

-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중앙인민위원회와 주석제를 신설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주석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김일성의 국가영도체계를 확립

-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규정

○ 헌법 및 법률과 관련한 김정은의 업적들을 소개

- ▲2012년 헌법개정을 통한 김일성-김정일헌법 명명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2019.4.12)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법체계 완비 및 법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향과 방도 제시 ▲당의 정책적 요구에 입각하고 발전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 심화

* “올해만에도 재자원화법, 원격교육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여러 법을 새로 채택”

○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 예고

- “경제관리분야에 법질서 강화”, “생산계획 무조건 수행을 위한 법적 통제 강화”, “국가자원 이용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감시 심화”, “인민경제계획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 확립”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

○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해야 하는 기본요구들을 설명

-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해결) ▲공화국법은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척결 투쟁 및 인민의 이익 옹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한 국가의 인민적 성격 고수
- (경제 전반 활성화 및 우리 식, 우리 힘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 독려) ▲경제관리 분야에서 법질서 강화 및 법률의 조직동원적 역할 제고를 통한 자립경제의 우월성 최대 발양 ▲사회주의경제관리 원칙의 요구대로 생산과 기업관리 진행 및 생산계획 무조건 수행을 위한 법적통제 강화를 통한 경제 전반에서의 활력과 전진 도모 ▲기업소들에서의 국가자원 이용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감시 심화 ▲생태 환경 적극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

○ 철저한 법규 준수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

- (김일성-김정일헌법 철저히 구현) ▲선대 수령들의 법무사상과 이론, 유훈으로 튼튼히 무장 및 법의 요구 철저히 준수 ▲모든 문제들을 선대 수령의 교시대로 인민의 요구와 이익 실현을 중심에 놓고 해결 ▲선대 수령의 인민적 시책들을 확대, 발전

-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 철저히 확립) ▲철저한 준법의식 생활화, 습성화 ▲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준법교양을 통한 법의 인민적 성격과 우월성 체득 ▲대중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사업과 생활에서의 법질서 엄수 유지 ▲사업상 특성과 생활상의 애로를 핑계로 하는 위법행위 금지를 위한 꾸준한 교양 ▲청소년들에 대한 준법 교양 강화
- (준법에서의 일군들의 모범) ▲모든 사업에서의 위법 여부 엄밀히 진단 및 법의 요구대로 사업 진행 ▲인민경제계획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 확립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통제를 받기 위한 의식적 노력 경주 ▲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진행
-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 제고) ▲인민정권 일군들은 국가적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 ▲법집행에서 이중규를 불허 및 혁명적 원칙 고수 ▲법무사업의 모든 문제 해결에서 인민의 요구와 이익 우선시
-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 위원회적 사업으로 전환 ▲법기관들과 법집행에 대한 정책적 지도 강화 및 인민 대중제일주의정치 철저히 구현